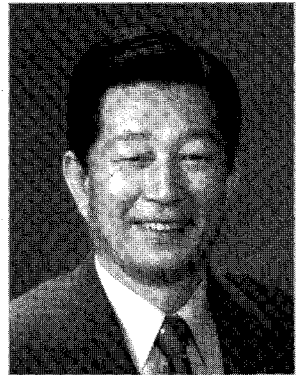


## 변화와 차별화의 시대



강 석 진 (주)우진비앤지 대표이사/본지 편집위원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 맹상군이 진나라에 갔다가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는데, 갓고 간 흰여우 가죽옷을 진왕의 애첩에 선물하고 저녁에 석방되었으나, 진왕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밤중으로 도망해야 했다. 도중에 국경지역의 관문을 통과 해야만 했고, 법으로 닭이 울어야 문을 열게 되어있는데, 수행원중 한사람이 닭 울음 흉내를 내니 주변 닭들이 따라 울어서 지체 없이 탈출했다고 한다.

이로보아 닭은 고대부터 가축으로 사육되면서 매일을 여는 메신저 역할도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닭 울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닭과 계란은 근년까지도 귀한 손님대접에 쓰여 왔고, 축산이 산업화 되는 첫걸음 역할도 했다. 이후 '76년에 쇠고기, '78년에 돼지고기가 수입되면서 축산업이 대규모화 되고 양계와 함께 국민의 식량산업이 되었다.

공자와 자로의 문답에 보면 나라가 강건하게 오래 지속되려면 병(兵)과 식(食)과 신(信)이 있어야하나, 이중에는 군력보다는 식량과 신뢰가 더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식품은 섭취자의 성격에도 영향하는데, 동물의 경우 육식동물(호랑이 등)과 초식동물(소 등)을 비교해 볼 수 있

“

“우리나라의 양계산업도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해오기는 했지만, 현재에 안주 하거나, 부문 부문의 크고 작은 여러 문제점들을 근시안적이거나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하여서는 국제화의 거센 파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

졌으며, 인류에서는 4세기경 수렵민족이던 중앙아시아 훈족의 앳틸라 군대는 당시 농업위주이던 유럽대륙으로 노도처럼 밀고 들어감에 따라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촉발했었고, 훗날 유럽이 발전하여 육식위주가 되었을 때는 농업위주인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많은 국가에 진출하여 식민국으로 지배해왔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초식만 하던 때는 국민정서가 소극적 수세적이었으나 '80년대 이후 축산물 많이 먹게 되면서 크게 달라져서 이제는 세계유수 국가들과도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자부심과 적극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지금껏 세계 사회를 주도해온 서구의 이기적 과학문명의 파괴성과 패권주의적 충돌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회평화를 연구하고 있는 여러 미래학자들이 포용성과 조화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인들의 역할을 논하고 있음에도 걸맞도록, 우리의 먹거리도 필요 에너지의 50%는 동물성으로 현재의 40%미만에서 더 상향되어야 하겠다.

혹자는 육류과다를 염려하고 있지만 우리의 평균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며, 닭고기는 저지방 육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웰빙 식품이 되어있고, 그 동안에는 콜레스테롤을 염려하던 계란도 하루 한 두개는 오히려 사람에도 필수적인 콜레스테롤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준다는 연구도 보고 된바 있다.

이처럼 양계산업이 당위성과 수요 잠재력이 높기는 하지만 오늘날은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 시대이니 만큼 우리나라의 양계산업도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해오기는 했지만, 현재에 안주하거나, 부문 부문의 크고 작은 여러 문제점들을 근시안적이거나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하여서는 국제화의 거센 파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다 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충실하게 실천해서 전문화 차별화를 이룩함으로써 굳건하고, 궁지와 자부심을 갖는 어엿하고 영속적인 산업이 되어야 하겠다. 어려움이 클수록 성취되는 결실도 더 탐스럽다고 한다. **양계**